

□국제 교육원 한국어 과정 재외한국인 김철웅씨를 만나

한국은 나에게 '무한한 꿈터'



빛과 그림자가 불어다니다 밝음과 어두움은 공존한다. 우리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두었지만 쉴 수 없는 오펜도 많이 얻었다. 우리가 쉼을 못한 우리의 핏줄, '입양아' 하지만 어린 나이에 낯선 세계로 버려진 그들이 건강한 청년이 되어 돌아왔다. 우리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스웨덴에서 온 한국청년 김철웅씨를 만나 보았다. <편집자>

국제교육원 3층. 강의실마다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해 있다. 열심히 필기하고 경청하는 그들에게서 삶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다.

외국학생들 중에서 유난히 짧은 머리에 독특한 안경을 쓴 학생이 있다. 스웨덴 입양아로 약 두달전에 한국을 방문한 김철웅군이다. 올해 대한민국 초청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을 오게 된 그는 스웨덴 Gothen-bury(오펜보리)대학에서 학사과정을 밟고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다니러 온 것이다. 6개월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원하는 대학에서 2년동안 공부를 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일부터 한국어 과정을 시작하면서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김철웅군은 한국의 장마와 여름날씨 때문에 무척 고생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곤란이었다. 졸리고 피곤할 때는 정말 학교에 가지 싫다고 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늦장도 부리고 싶지만 정해진 한국에서 생활들이 가까워 그리지 못한다.

"어릴때 한국문화가 정말 궁금했어요. 14살 때 우연한 계기로 한국유학생에게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고,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말로만 들었을 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때부터 제 관심은 오직 한국뿐이었죠."

세살이라는 나이. 부모님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많이 받을 시기에 스웨덴에 입양된 그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이 궁금했다.

90년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궁금증이 풀릴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모든게 낯설었다. 어릴때부터 살아온 환경이 너무 틀리기 때문이었다. 당시 짧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1년생활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갈 때의 착잡한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95년 서울 친구를 만나러 왔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김철웅군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한국과 한국문화를 배우려고 한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일본, 중국, 필리핀등)보다 다양하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찬란한 5천년의 역사속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 계승한 것은 제가 봐도 자랑스러워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김철웅군은 항상 입양문제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에서 입양아협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성적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입양문제는 너무 심각하다"고 어필한다. 요즘은 입양아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성과 정체성의 존중만이 해결방안이라 주장하며 어떤 입양아든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호소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입양아들은 혼란스러워요.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살면서 내



▲외국교환학생, 도우미와 함께 방문한 수원캠퍼스 사색의 광장

내 삶의 퍼즐에서 하나가 빠진것 같았어요
그 하나는 아마 한국의 친부모님이 아닌가 해요
건강하게 살아 계시길 바랄 뿐이죠

삶 중 무엇인가가 빠진듯한 느낌이 많았죠. 퍼즐에서 제대로 맞추고도 하나가 비어서 완성이 안된 기분 같다고나 할까요. 그 하나의 퍼즐이 제 마음 속 깊이 있었고, 한국에서 나머지 하나의 퍼즐을 찾으려고 노력중이에요. 아마 하나의 퍼즐이 친부모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신다면 건강하게 계시길 바래요"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이승철, 김현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들의 노래를 끝날 따라부르곤 했지만 요즘에는 입양장의 노래가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한다. 노래 뿐만아니라 영화에도 관심이 깊다. 최근 본 영화가 '비트'와 '잃어버린 세계'인데 외국영화 보다는 한국영화를 더 많이 보고 싶어 한다. 그것들이 다 한국문화와 관계가 있다는 그의 생각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기간동안 생활비는 국제교육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달에 받는 돈이 60만원인데, 하숙비로 약3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거나 교

통비로 쓰고 있다. 달리 쓸 곳이 마땅치 않다.

흔히 좌우명에 대해 물어보면 곧잘 대답할 수 있지만 김철웅군의 경우는 달랐다.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하기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했다. 한참 의미를 생각하고 나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관해서 만큼은 누구 못지 않게 잘 하고 싶어요. 먼 훗날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스웨덴과 한국을 연결시키는 일말이에요. 아직은 윤곽이 뚜렷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될거라 믿어요." 그에게 한국은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는 곳이다.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하지만 늘 시간이 모자란다. 한국에 있는 시간동안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김철웅군은 마지막으로 모든 외국사람이나 재외동포에게 많은 가르침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강조했다.

<김동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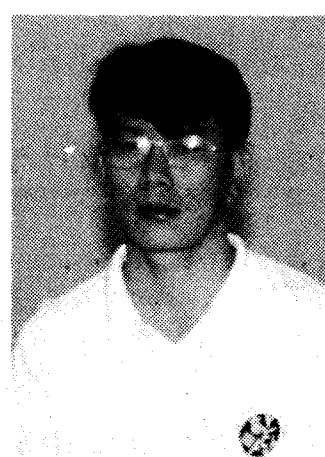
□인터뷰 — 한국어강사 김제열

'가르치는 보람에 살죠'

한국어 강사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어 과정이 처음 신설되었을 때 강사를 모집했다. 마침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한국어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기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어려웠던 일이 있다면

한국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방법론을 모색할 수 없었다. 외국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한국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보고 싶은 생각이



오셔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을 지적하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 필요

들었다.
한국에 대한 외국학생들의 반응은

처음 외국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사람은 잘 웃지도 않고, 미안한 일을 하고도 사과 안 하고, 화장실에 휴지 도 없고. 그런 불만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고 나서 한국을 금방 좋아하게 되었을 때 한국어 강사의 한 사람

자면 한국어 과정의 제도적 정비와 시간강사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시간강사시스템의 경우 강사들 대부분이 직업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직장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하는데 학교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한국어 과정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

<김동혁 기자>

□한국어 과정이란?

정부공식 한국어 교육기관

총 30여국에서 90명 학생이 공부

국제교육원의 교환학생, 소수의 자비유학생, 재외동포장학생들이 한국어 과정에 대해 수업을 듣는다. 정규과목은 문법, 가을학기의 16주 그리고 여름학교, 겨울학교 4주의 특별 과정이 있다.

교육시간은 정규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있다. 정규과목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다. 총 15시간으로 5과목으로 3학점씩이다. 선택과목은 문화, 한자,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중 마음에 드는 과목을 신청한다. 총 4-6시간이고 3과목으로 2학점이다. 국제교육원의 교강사는 지도교수 1명, 강사(박사과정 이상)가 18명이다. 현재는 박사 5명, 박사후 7명, 박사과정 4명, 석사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



▲서울캠퍼스 국제교육원

에 거주하는 우수한 동포에게 모국에서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실시된 이번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에서 우리학교는 대학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한국어 위탁교육을 맡고 있다. 이번 2학기 학생

들의 현황은 총 30여개 국으로 정부 초청외국인 40명, 정부 초청 재외동포 20명, 교환학생 10명, 자비유학생 20명이다. 국제교육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몽골 오리엔탈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여명의 몽골 학생을 위한 10주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어 과정의 특징을 보면 타 대학과는 달리 대학 편제와 같은 학기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도우미제도로써 외국학생과 본교대(원)생을 일대일로 만나게 하여 한국어 및 문화를 쉽게 익히게 하거나 생활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학점취득이 공식화되어있다.

<취재부>

믿을 수 있는 친구 - 삼성

삼성전기의 '29개 해외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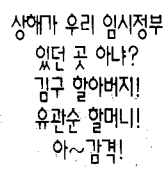
배낭여행을 다닐 땐 한번 둘러보세요.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최전방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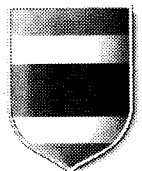
포르투갈 생산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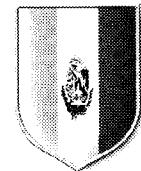
천진 동관 생산법인
심천 북경 상해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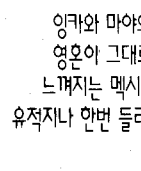
상해 우리 임시정부
있던 곳 아니?
김구 알어버지!
유관순 알어!
아~감격!



태국 생산법인
방콕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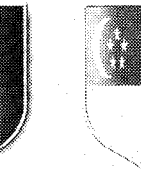
멕시코 생산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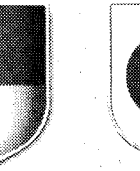
필리핀 생산법인
마닐라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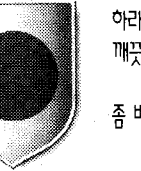
싱가포르 판매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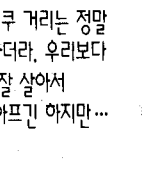
동경, 오사카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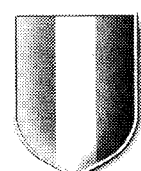
런던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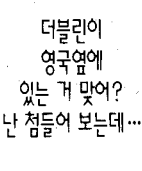
파리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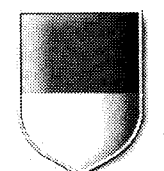
바르사바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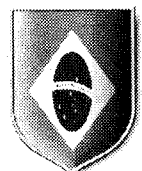
더블린 사무소



더블린이
영국에
있는 거 맞아?
난 침들어 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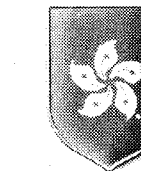
자카르타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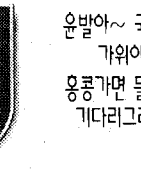
상파울로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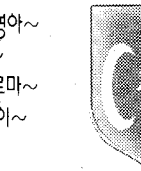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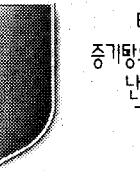
홍콩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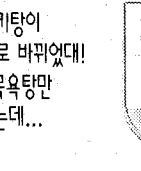
운남아~ 국영아~
가워야~
웅장하면 들르마~
기다리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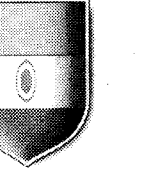
이스탄불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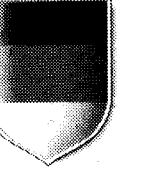
터키타이
중기향으로 바뀌었대!
난 목욕탕만
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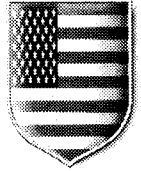
뉴델리 사무소



독일 판매법인



산호세 판매법인
사카고 사무소
뉴저지 사무소



타이베이 사무소

꺼지지 않는 캠퍼스의 불빛이 그 나라의 미래를 밝히듯-
삼성전기는 국내 3개, 해외 6개 생산법인, 해외 23개 사무소를 통해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부품회사입니다.

전자, 자동차 종합 부품메이커 - 삼성전기

2000년 WORLD TOP 종합부품메이커

SAMSUNG

삼성전기